

#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“문제”

산자부, 마티즈 4등급에 에쿠스는 2등급 ... 상대연비 등급제도 때문

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에 부여하는 에너지 소비효율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10월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(국민중심당)은 리터당 연비가 13km 이상인 중소형 차량 상당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3-4등급인데 비해 정작 8km 미만인 체어맨, 에쿠스 등 대형차들은 2-3등급으로 등급이 더 높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

산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, 휘발유 1리터로 16.6km를 달릴 수 있는 경차 마티즈는 소비효율등급이 고작 4등급인 반면, 7.6km 밖에 달릴 수 없는 에쿠스 3.8DOHC 모델은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외제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국산차 보다 상대적으로 고배기량 차량이 많은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40.4%가 2등급 판정을, 일본산 자동차 52.8%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.

권선택 의원은 “현행 제도가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간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행하기 때문”이라며 “제도가 에너지절약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”고 비판했다.

아울러 “영국과 벨기에,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,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되면 국내 판매 수입차의 절반 이상이 4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0/17>